

언약과 기도 (출애굽기 17:8-16)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언약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오늘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언약잡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장면을 기록해놓았다. 그래서 언약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다.

인간은 누구나 응답이 필요하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응답은 우리 문제 해결과 함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역할도 함께 한다. 그 첫 번째는 응답이 없으면 증인이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응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눈이 열린다. 그냥 머리에 외워서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응답이다. 알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든지 안다. 그런데 이게 응답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하고 눈이 열려야 한다. 믿음으로 물론 확인할 수 있다. 믿는 순간 영원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면 아무 증거 없이도 믿어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고, 그 사람도 늘 현장에서 다시 그 언약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응답이 있어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응답이 지속되어야 답이 난다. 믿는 순간에 답이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응답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응답을 통하여 확인된 후에 그렇구나 라고 답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응답없이 답이 안 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답이 나와 그것을 언약으로 잡게 된다. 응답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답이 난다. 답이 나와 진심으로 그것을 언약으로 잡는다.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 언약으로 잡으면 그제서야 생명을 걸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면 된다는 답이 났기 때문이다. 이것이라야 된다는 답이 났는데 다른데로 갈 바보가 어디 있는가? 그러면 생명 걸고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24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24시는 인간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응답의 마지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시간 이상은 없다. 이제 24시가 시작되어지면 더 깊은 24시로 계속가게 된다. 이처럼 응답은 단순히 문제 해결 이상의 영적인 가치가 있다. 오히려 응답 자체보다 응답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은 기도제목이 언약과 기도이다. 이 기도 응답이 언약 안에서 일어난다. 이 기도 응답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언약과 기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있기 바란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잘 깨달아 지기를 바란다. 언약을 떠나서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도에도 의해서 언약의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 기도가 깊으면 언약이 깊어진다. 이런 중요한 상관관계를 깨닫고 이 기도와 언약에 대해서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란다.

1. 기도

오늘 본문은 언약잡은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합심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야기이다. 그 때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졌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한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버릇처럼 되어 있다. 아말렉은 그 나라와 민족의 출발이 불분명한 민족이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연구가 잘 안되는 민족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대로 사무엘상을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싹 죽이라고 하였다.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악한 민족이다. 그리고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보고 하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순

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 악한 민족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하면 졌다. 그래서 12절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 그랬더니 장군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부수고 이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잡은 자의 기도와 그들의 합심기도에 대한 메세지이다. 그리고 또하나, 전쟁마저도 기도가 결정하는 영적문제라는 것이다. 중요한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하튼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하면 진다는 중요한 메세지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언약잡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뤄낸 중요한 응답이다.

내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을 자주 들었다.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은혜가 많이 된다. 그리고 그 때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한번은 열몇명되는 기도원에 사는 할머니들이 나왔다. 이 분들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제목을 받았다. 그래서 기도제목을 받으면 밥먹고 나면 기도하고 밥먹고 나면 기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냥 안 있고, 선물도 보내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도응답받은 것을 이야기 하는데, 참 놀라운 응답들이 있었다. 거기에 이름과 주소가 나오는데, 사람은 잘 모르지만, 종이에 이름을 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할머니들 만나러 갔는데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달덩이 같았다고 한다. 기도하는 그들이 더 많이 축복받은 것이다. 거의 25-30년전 일이다.

그리고 근래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자기 심장이 1/3밖에 안 움직이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조심안하고 일하고 돌아다녔던 것이다. 그러다가 졸도를 한 것이다. 그래서 14일간 이 사람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죽지는 않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다. 사람이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비몽사몽간에 자기 교회의 기도팀의 찬송과 기도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힘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이 성도들에게 간증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 안했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 분이 그래서 영적인 체형 많이 했다. 원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었었다고 한다. 부인은 권사이고 자기도 교회는 가지만 안 믿었었는데,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나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게을리 하면 안되겠다 생각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사실,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기도제목 적어 놓고 읽어 기도 되는 것이다. 그 기도제목을 적어놓고 자기 혼자 찬송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영적으로 전달된다는 이야기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세 혼자서는 안된다.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줘야 한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세지이다. 갈수록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공격한다. 그때 우리가 하나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마음에 중요한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여하튼 전체 이야기는 니가 기도하면 내가 역사한다는 것이다. 니가 기도하면 분명히 니가 이긴다는 메세지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 해야 한다. 이런 기도 하는 팀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크게 한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한다. 세계 복음화도 그렇고 렘넌트 운동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한걸음 크게 나가야 한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절대로 코로나에 물리면 안된다. 어쩔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이다 아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올라가는데, 사망률은 거의 제로라고 한다. 코로나 있을 때 초반에 이런 메세지 했었다. 유럽에서 페스트가 300년간 사람들을 파리목숨처럼 죽였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은 교

회사에 시대적인 일이었다. 잘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숨으면 안된다. 숨으면 사단에게 더 죽는다. 죽을라는 사람은 산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 중직자들은 왜 중직자가 되었는가? 생각해야 한다. 청년들은 어디다 우리의 에너지를 다 쓸것인가? 렘넌트를 살려야 한다. 어르신들은 이제 조용히 인생 정리하고 기도해야 한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다. 그 할머니들의 얼굴이 달덩이 같았다고 했다. 자기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이다. 언약을 가진자는 기도해야 한다. 언약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움직이는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와 있다. 그 약속이 움직여서 우리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데 그 무기를 줬는데 그것이 기도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질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이다. 그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항상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언약

기도로 승리했던 모세는 방향이 확실했다. 그것이 가나안이다. 이것이 그에게 언약이었다. 그리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이었다. 그래서 아말렉은 반드시 죽어야 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 없는 것이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은 자는 전부다 죽었다. 홍해도 죽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아주 간단했다. 기도가 간단하면 힘이 있다. 오직 그것만 기도하면 되는 그런 기도였다. 그것이 모세였다. 언약이 들어와 언약이 된자의 기도의 특징이다.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언약이 된 자의 기도는 간단하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항상 바탕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언약의 여정을 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는 천명이었다. 그래서 의심없이 아말렉을 꺾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 돌아볼 것 하나도 없다. 이것들은 죽어야 한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모세가 가나안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했겠는가? 그래도 몇 번은 응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길을 가로막아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물론 모세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한다. 우리 같이 언약한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내게 언약이 되어지면 이건 내 기도의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세계 복음화, 237이 내게 천명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한 권세가 된다. 그 기도는 아주 의미있고 힘이 있을 것이고, 간단할 것이다. 생각이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집중하니까 당연히 간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이것을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내게 언약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 외에 모든 기도는 사실은 기도지만 거의 필요없는 것이다. 그 외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지만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하면 달라진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다. 237, 세계 복음화는 우리 기도의 구체적인 방향이다. 이 두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천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언약이 되고 237이 방향이 되면 내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게 근본언약이라면 237은 내 인생의 이유요 사명이다. 답도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되지만 이 사명도 중요하다. 이 사명도 중대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된다. 모세는 이 두가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3:15 절을 모세가 썼다. 그리고 가나안의 사명도 확실했다. 모세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 모두 이 두가지 언약에 확실했다.

이번 WRC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다. 거기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몇가지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이 시대는 Exit age다. 시대와 관계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Untact시대라고 했다. 비대면시대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급속하게 다가올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과연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이상한 시대가 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의 사역이 아니고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문제는 이렇게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사역을 할수 있는가? 지금도 눈에 보이는 변화만 보면 즉시 우리가 낙심된다. 우리는 너무 뒤쳐져 있다. 때로는 두려울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배경이 하나님이다. 이 세대가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도 상관없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가나안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237이다. 그리스도가 항상 근본으로 누려지고 세계복음화의 천명이 있다면 된다. 이것은 세상변화에 대한 완전한 무기가 된다. 이상한 시대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완전한 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다. 변화는 그냥 참고로 보고 우리는 근본 답만 잡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자동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대를 뛰어 넘고 시대를 살리게 된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언약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된다.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변해도 이 답 하나로 끝이다. 이유가 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이상한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가진 답은, 기준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는 그냥 보고 참고하고 있으면 된다. 우리가 거기에 신경쓰는 것이 아니고 내용만 잡고 바깥의 모습만 잠깐 바뀌려면 된다. 그 변화된 것에 복음을 적용하고 그 복음으로 승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근본 내용은 항상 있고, 바깥 모습만 잠깐씩 바꾸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활 형태만 바꾸면 된다. 우리가 언약속에서 잡는 것이다. 그리고 바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바뀌면 바뀐것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만 잠깐 바꾸면 된다. 혹 이런것에 예민한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 없다. 물론 예측을 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언약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언약을 변하는 일은 없다. 그 내용이 바뀌는 일도 없다.

계시록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다. 지금보다 더 심했겠지만 그 때도 기준은 그리스도 십자가였다.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살고,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산업이 바뀌어도 죽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주신 것이 계시록이다. 백차산업이 와도 상관없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려고 발버둥치면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일 죽어도 괜찮다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어짜피 천국이 더 좋지 않은가? 분명히 천국이 있으니, 이 땅에서는 게임과 비슷하다. 우리가 더 살아야 할 이유 있다면 전도 하나이다. 그 외에는 아무 가치 없다. 하나님 눈에는. 그런데 세상이 변한다면, 그냥 변하라고 하고 우리는 언약만 잡고 생활방식만 조금씩 바꾸면 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답이 있다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들끼리 백차산업 만들고 온 땅의 돈을 다 가져가도 나는 내 먹고 사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정복해서 자기끼리 만세를 부르고 해도 상관없다. 거짓말이라 결국 죽는다. 우리는 거기에 눈돌릴 필요 없다. 오히려 이것에 물려서 신앙생활이 깨지는것에 신경써야 한다. 아무리 변해도 언약과는 상관없다. 언약 가진 우리와 상관 없다. 바뀌던지 말던지. 있다면 오직 외부의 변화, 조금 변화되는 것, 이것도 안하면 탈락되니까, 그런 변화부분에서 일등할 필요 없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언약도 있고 일등할수 있는 지혜도 있으면 일등 하면 된다. 그러나 일등할수 있는 지혜가 없다고 해서 불안해 하면 안된다. 아무 관계 없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안 그런가? 다시 한번 언약잡고 승리하기 바란다.

하나님은 언약잡은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끝까지 단 한명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다 승리하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전도나 많이 하면 끝이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한가지 중요한 메시지 주셨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백차산업 와도 상관 없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긴다. 축복 있기 바란다.